

'95 미술의 해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불화의 현대화

이제 불화(佛畵)는 더이상 사찰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화는 가정에 걸고 감상할 수도 있고 회관이나 사무실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화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은 불화가 갖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화단과 감상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그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즉, 불화는 예배의 대상으로 존중되기도 하지만 경전을 해석해 대중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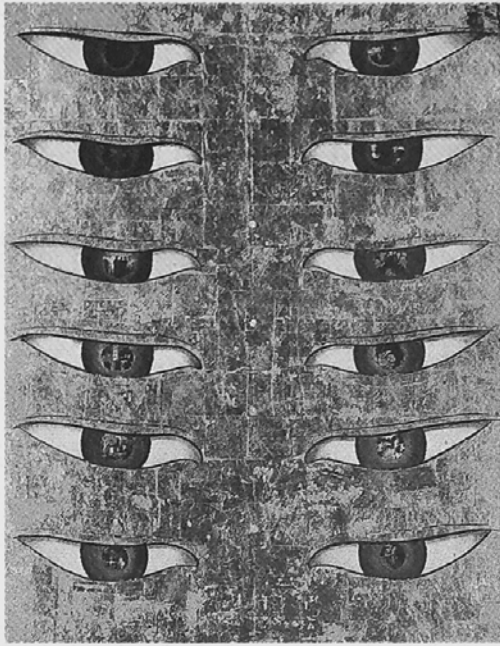
또한 김의식씨의 경우도 "모본에 의존한 탱화 개념의 불교미술을 작자정신이 놓인 새로운 해석의 형태로 바뀌어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 불화의 대가를 이룬 스승 아래서 다년간 정통기법의 불화그리기를 수습했다는 점이다. 즉, 그러한 수업을 토대로 불교미술의 새지평을 열기 위해 불화에 대한 감상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화의 현대화가 실현될 수 있는 잠재 조건이 정통기법의 충분한 습득임을 암시하는 예이기도 하다. 불화그리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통토대로 새 지평 열길 대중감상·교화대상 돼야

로서의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각종 탱화나 번상도처럼 사찰 벽면을 장엄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들어 전통 불화의 원형을 현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불화계열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정통불화의 원형을 새로운 불교미술의 개척이란 측면에서 변화시키는 대표적 작가로는 손연철(동대교수)씨와 김의식씨가 꼽힌다. 손씨의 경우 오랫동안의 불화그리기 공부를 토대로 우리시대의 불화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손씨는 전통불화의 붓질이나 색채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정신 세계와 인류공동의 과제들을 작가적 안목으로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다.

일부 문화강좌에서 불화그리기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만봉스님등 대가의 문하에도 불화공부를 하는 신도들이 다수 몰려들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전통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의 반영'이 전제된 불화의 창작의욕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종교미술로서의 불화는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불교적 해석이 따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불화의 현대화, 우리시대의 불화 그리기 그리고 그 감상자의 인식제고와 자비 확대. 이같은 과제는 작가와 감상자 모두가 고정관념 혹은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때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태>

'오늘의 감로탱화' 첫선



손연철작 「천수천안 관세음보살」(167 X 133)

감로화의 전통 위에 표현되는 우리시대의 불교미술이 소개된다. 손연철교수(동국대)가 마련한 첫 개인전 '감로화전'이 그것.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광복50주년 기념관 관음송가에서 열린다.

손연철 교수 첫 개인전 22~28일 광복아트센터

전시회는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감로화를 우리시대의 감로화로 연결시키려는 작가의 숙제풀기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손교수는 전통과 창작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방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손교수의 작품에 대해 "불화의 전통을 충분히 연마한 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창조적 실험정신의 반영"이라고 격찬했다. 또 미술평론가 윤범모씨도 "과안을 꿈꾸는 구도자의 실경과 같이 현실세계의 여러 모순에

기아·전쟁등 충격영상 전통문양·색채로 용해

수 많은 눈의 형상 속에 숨겨져 있어 우리시대의 처절한 현실들이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전제되는 3백호 규격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교본사고, 기아, 전쟁, 음주, 화투노름 등을 전통 문양과 색채 속에 용해시킨 '유니세프 지장보살' 등의 작품이 주는 충격적인 실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가를 묻기도 한다. 대한 비판적 검증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뒤늦게 첫 개인전을 여는 손교수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나와 석정스님의 문하에서 불화를 공부했으며 79년 전통공예전 장려상 80년 불미전 중점상 등을 수상했다. 그밖에 다수의 회원전과 주제가 있는 그룹전에 작품을 내놓으며 불화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광복50년 통일기원 관음송가

삼보사, 서울 회향무대...4월8일 세종회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통일 기원송가'가 4월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미당전지로 꾸며진다. 창작 국악교성곡 천수천안 관음송가로 93년 7월부터 '한라에서 백두까지' 공연을 개최해 온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주지 지원)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제8회 서울공연연을 마련, 남북을 하나의 흥으로 순화하는 대공연을 마련한다. 이날 무대는 총 3악장으로 구성되며, 지원스님의 글에 변규백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천수천안 관음송가'를 변규만씨의 지휘로 삼보사 관현악단이 열창한다. 제 1악장에서는 대각사합창단, 관음사합창단등 6개합창단의 찬송출연으로 예경·천탄의 민족통일 기원송가가, 제 2악에서는 삼보사무용단의 통일희, 제 3악장에서는 삼보합창단의 민족통일 발원송이 연주된다. 이날무대에는 삼보사의 180여 단원외에 찬조출연 합창단 250여 단원들이 참여해 민족적 사업으로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공연실황은 라이브음반과 영상으로 제작 보급된다. 이 행사를 이끄는 지원스님은 "노래는 만인의 흥이다. 흥겨움 속에는 미움도 사랑도 선도 악도 없다"며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하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732-9027>

45개강좌 내달개강 불교문화센터

진흥원이 운영하는 불교문화센터 제10기 강좌가 3월6일부터 문을 연다.

아동극 '손오공과...' 공연 내달 3일부터...단원도 모집

불교극단 바람(대표 원장)이 아동극 '손오공과 발오공'을 3월3일부터 18일까지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공연한다. 기간중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4시, 3차례씩 공연하는 '손오공과 발오공'은 이하기씨의 극본을 조정씨가 연출한 작품. 손오공, 발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만나 모험을 하는 이야기다. '손오공'의 새로운 모습

으로 꾸며진 이 연극은 어린이들에게 새세계를 향한 꿈과 상상의 시간을 안겨준다. 한편 극단 바람은 불교를 바탕으로한 공연 예술의 내일을 개척해 나갈 단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연기, 조명, 분장, 무용, 음향, 기획등이며 고졸이상 남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기간은 3월19일까지. <문의: 722-0205>

차생활교육원 강좌

한국차생활교육원(원장 김승희)은 95년도 1학기 개강식을 3월 4일 오후 3시에 교육원에서 갖는다. 강의 내용은 「한국차문화」 「행다실습」 「전통예절」 「한복 바느질」 「제다실습」 등이며 차와 전통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732-9027>

돈황벽화 대구전시회

돈황 벽화전이 14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으로 대구 동아쇼핑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돈황화원(돈황벽화 모사 전문단체)의 노력으로 묘사된 벽화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서울 대전 울산 부산 순회전에 이은 행사다. <문의: 739-4643>

만봉스님등 작품출품 중흥연구기금 마련전

태고종 중흥연구 기금마련을 위한 특별전이 22일부터 28일까지 관동동 조형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에는 만봉스님, 이인실, 홍창원, 김영민, 최성규씨의 불화와 회화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739-4643>

불심시심 (12)

하늘가에 지는 산

野暗烟如織 (야암연여직) 천으로 깔린 연기, 들은 꺾꺾하고
沙明月似燐 (사명월사린) 활 같은 달에 모래는 빛나다.
木疎江不盡 (목소강부진) 나무 성글어도 다함 없는 강
天外落三山 (천외낙삼산) 아득한 하늘 끝 삼산이 침몰하네.

이 시는 조선조 서산대사 정해(靜海)스님의 시이다. 스님은 역대 어느 스님보다도 큰 스님으로 일컬어지지 않지만 스님으로 끝임 없이 있어도 이분이 없을 것이다. 분량으로 그 려게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작품 하나 하나가 사체로서의 품격을 깊게 간직하고 있다. 스님이기에 선기가 넘쳐나는 시도 많지만, 사체로서의 성숙된 작품이 모두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감정이 없이 풍경으로만 서술된 것 같지만 숨겨져 있는 시의 시어에서 보이듯이 한 쪽의 그림같은 풍경을 비단처럼 짜놓은 시다. 끝없이 수평으로 내달리는 시상이다. 들을 따라 평행으로 깔려 있는 저녁 연기는 한 쪽의 비단을 퍼 놓은 것이다. 백사장에 사선을 긋는 달빛, 그 달은 활동같은 반달이다. 어쩌면 달빛이 화살이 되어 모래를 쏘는 것이기도 모른다. 그러기에 달빛을 받은 백사장은 반짝이는 흰 빛을

이쪽으로 뒤흔치는 화살 빛으로 보내는 것일 것이다. 오는 사선의 빛 가는 사선의 빛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수직의 가늘 나무, 잎이 없이 앙상하지만 강물은 사선과 사선, 수직의 선, 그 아래 수평을 긋는 또하나의 선, 이 끝 없는 수평의 선에 또 수직으로 침몰해 가는 두서너 봉우리의 수직선, 그야말로 선과 선, 울과 울이 종횡으로 얽혀 짜여지는 한 쪽의 비단이다. 감정이 없이 풍경으로만 서술된 것 같지만 숨겨져 있는 시의 시어에서 보이듯이 한 쪽의 그림같은 풍경을 비단처럼 짜놓은 시다. 끝없이 수평으로 내달리는 시상이다. 들을 따라 평행으로 깔려 있는 저녁 연기는 한 쪽의 비단을 퍼 놓은 것이다. 백사장에 사선을 긋는 달빛, 그 달은 활동같은 반달이다. 어쩌면 달빛이 화살이 되어 모래를 쏘는 것이기도 모른다. 그러기에 달빛을 받은 백사장은 반짝이는 흰 빛을

'세계의 문화유산' 어떻게 선정되나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의 신청은 각국이 대표적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신청하고 WHC가 비정부기구인 국제문화재추진위원회(ICOMOS)에 평가를 의뢰해 진위여부와 실제의 조사된 신청 유산들은 다시 WHC의 사무국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와 협약 운영지침 제24조에 따른다. 이 지침은 특별한 예술적성취나 창조적 천재적능력에 의한 결과,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밝히는 약식의 건물이거나 건축군등의 6개항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ICOMOS의 전문평가단도 디자인, 재료, 위치등의 진위여부가 분명하고 추측에 의한 것은 배제한다는 등의 기준을 세우고 평가에 들어간다. 이같은 조건과 기준에 하자

WHC, 신청받아 현지조사후 심의 현재 中·日등 95개국 4백11점 등록

에 각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료 검토후 최종심의를 거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꼽히게 된다. 지난해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의 문화유산을 등록시킨 나라는 95개국이며 유산은 4백11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 복합유산이 합쳐진 신청현황이다.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관련 기준은 세계유산

"우너되어 수미산 오를터"

'수미산' 삽화 새로달은 조향숙씨



조향숙씨

'현대불교' 10년에 인기리에 연재중인 고은 불교소설 '수미산'의 삽화를 최규일씨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호부터 조향숙씨가 맡는다. 조향숙씨는 서울수도여자사범 대학원 미술학과를 나와 국전에 다수 입선했으며 불교미술대전에서도 세차례 입선한 재능있는 화가다. 조향숙씨는 퇴치(돌부스럭기에 돌은 풀)등인 화원으로 수차례 회원전을 가졌으며 석도룡선생으로부터 그림공부를 20년이상 해오고 있다. 경전과 시경등을 통해 불교와 동양정신을 공부하며 자신의 화

력을 다지고 있는 조씨는 현재 무악여고에 재직중이며 오는 4월에 열릴 '보살과 강산'을 주제로한 화차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섬세한 필선과 독특한 색감으로 이미지 강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고은 선생님의 큰 작품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는 조씨는 "나도 우너가 되어 독자와 함께 수미산 정상까지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성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햇빛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목들과 친화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전승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꾼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